

인터뷰1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27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작가 작업실)

2015년 7월 4일 (광화문)

대상 : 노은주 작가 (이하 '노')

인터뷰 : 박주원 (이하 '박')

박) 윌링앤딜링에서의 개인전(상황/희미하게 지탱하기)를 통해 만난 후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요즘은 어떤 작업을 진행하는지? 당시와 비교하여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노) 당시 개인전에서 보여줬던 작업들과 비교해 가시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이전에 해 왔던 작업들에서 간과하고 지나갔거나, 스스로 반성할 만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었다.

윌링앤딜링에서의 개인전에서 보여주었던 <허공에 선긋기>와 같은 작업에서 볼 수 있듯, 이전에는 공간을 기록하고 공간에서의 신체적 경험을 통해 느낀 감정이나 긴장요소들을 조형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작업에 있어 보다 시각적인 부분에 치중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이전 작업은 '쌓기, 기생하기' 등 행동양식에 관한 설치 작업과 함께, 공간에 관한 스터디에 가까운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와 동시에 작은 공간을 나누어 쓸 때에 그 경계에서 느껴지는 불안이라던지, 나 스스로가 공간 속에서 실제적으로 느꼈던 긴장요소들을 작업 속에 집약하고 시각화하는데 관심이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전 작업들은 공간 속 내가 처한 상황이나 그 안에서 느낀 감정들을 설명한다는 의미로서 신체적 경험을 조형화했다고 볼 수 있겠다.

반면, 그러한 감정들을 상징화하는 것에 집중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어느 순간 왜 이러한 감정들이 작업 속에 조형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보다 시각적인 자극, 즉 나로 하여금 '그림을 그리고 싶다' 는 충동을 가지게 하는 대상은 어떤 것일까라는 것이었다. 작가에게 그림을 그리는 데에 있어,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그리는 대상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망막에 담긴 장면 속 유독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 그것을 그리고 싶다는 충동이 드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리고 싶다' 는 충동을 주는 대상이나 장면들만을 그려서 모았을 때, 어떠한 모습일지 실험해보기로 하였다.

그것이 바로 <양양관광호텔>에서의 작업인데, 당시 미완성의 버려진 거대 공간이라는 대상이 흥미롭게 다가 오면서 작가들과 그곳을 방문해 그 공간 속에서 시각적으로 눈길을 끄는 장소들을 자연스럽게 그려본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완성한 <흰 깃 연습1>은 시각적으로 눈길을 끄는 공간들에 흰 깃을 설치하고, 그것을 그려내는 데에 있어 나 스스로 눈에 비친 장면 속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취하거나, 지워나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박) 작업에서 가시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the white flag>과 같은 최근 작업의 경우, 이전의 작업에서 강하게 보였던 건축적 요소가 많이 가려졌다. 그것이 신체적 경험을 조형화하는 것에서 보다 시각적인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된 것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다.

노) 어디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찾으려고 하면 그리 찾아보기 쉽지 않은 구조물들이 풍경처럼 다가왔다. 그렇게 평범해 보이지만 평범하지 않은 이미지들을 가공해서 하나의 사물로 만들었을 때, (실제로 주변에서 모은 사물들로 하나의 인공물을 만들고 그것을 대상으로 삼아 그림을 그렸다.) 그것들은 실재하지도 않으면서 기능도 없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물들을 통해, 어떻게 내가 도시에서 보게 되는 풍경들을 그려낼 수 있을까 고민해보았다. 지금의 우리가 바라보는 도시의 풍경은 예전의 풍경화와 많은 것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도시를 풍경으로 경험한다기보다는 사물로 경험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물이라 하면 우리 손에 잡히는 물건과 같은 작은 사물도 있지만, 보다 넓은 관점에서 볼 때

도시 위에 세워진 수많은 건축 구조물들도 하나의 사물로 보여질 수 있으므로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도시에서의 시각적인 경험에 집중해 보고자 하였다.

박) 하나의 사물을 선택하여 그것을 새로운 인공물로 재조합하는 데에 있어서도 앞서 언급한 대상의 선택 또는 '그리고 싶다' 는 충동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듣고 싶다.

노) 물론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을 그리고 싶은 건 아니다. 하지만 작가에게 있어 '그리고 싶다' 라는 본능적 느낌을 완전히 배제하고 무언가를 생산한다는 것은 꽤 불편한 일일 것이다. 이것은 결국 이전의 작업에서 풀지 못했던 고민들을 해결하려는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윌링앤딜링에서의 첫 개인전에서 작가와의 대화를 진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작업에 관한 여러 질문들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스스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작업을 통해 여러 시도를 진행하는 와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작업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거쳐 마치 하나의 완전한 결론에 도달한 듯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꼈다.

이후, 작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 생긴 고민들에 대해 더 집중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그리고 싶다' 는 본능적 충동들을 모아 가공한 뒤 새로운 대상으로 만들어보고자 하였다. 풀리지 않는 고민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그것들을 조형화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박) 새로운 인공물의 구축을 통한 페인팅 작업 이외에도 시도하고 있는 다른 작업이 있는지 궁금하다.

노) 항공사진 이미지로 작업한 것이 있다. 이것은 나의 어린 시절 도시에 대한 경험과 연관이 있는데, 당시 나는 신도시에 살면서 자동차를 이용해 서울로 통학을 했다. 때문에 직접 도시 안을 걸어 다니며 공간을 물리적, 신체적으로 경험하기보다 자동차 안에서 지나가는 풍경을 시각적 이미지로 경험했던 것이 더 컸다. 신도시 속 뽀뽀하게 서 있는 아파트라는 구조물들은 도시의 풍경을 보다 건축적 이미지로 생산하였고, 그 시절의 경험과 결부시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작업들을 보다 시각적으로 풀어보고자 한 것이었다.

동시에 이미지 합성 작업을 라이트 박스로 제작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픽처레스크(Picturesque)라는 용어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실제 풍경을 바라보며 '그림같은' 이라고 한 표현이 흥미롭게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또한 낭만주의 시대 유행했던 페허 이미지에 대한 탐구로서, 낭만적인 사유의 대상으로 페허를 바라보았던 것. 그리고 이를 위해 잘 가꾸어진 정원에 인공 폐허를 조성했던 이야기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진행한 것이었다.

박) 픽처레스크와 페허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

노) 페허는 불편한 대상이면서도 탐미적으로 다가왔다. 어린 시절 신도시에서의 도시적 경험은 언제나 구조물이 지어지는 모습이었으나,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도심 속 부서지는 건물들에 대한 시각적 경험을 하게 되었다. 물론 그 안에 도시 재개발이라는 사회적 이야기를 담을 수도 있겠으나, 나에게 있어 무너지는 구조물의 모습은 그보다 시각적 스펙타클에 가까웠다. 매우 낮은 시각성으로 다가왔고, 기본적으로 도시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꽤 상이한 것이었다. 이렇게 하나의 대상이 부서지는 것에 대한 스펙타클에 관하여 이를 낭만적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페허 이미지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며, 빈 집을 방문해 사진을 찍으면서 느끼는 불편함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누군가에게는 전부였을 삶의 터전 속에 들어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무너져가는 그 모습을 기록한다는 데에서 불편함을 느꼈다. 그리고 낭만주의 시대의 태도가 이러한 나의 경험과 맞닿아 있으며, 또한 픽처레스크라는 용어 자체가 그림을 보고 실제 대상 같다고 하기보다 실제 풍경을 두고 그림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흥미롭게 느껴졌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하나의 대상이나 풍경을 그리고 싶다는 충동을 설명해가는데에 어느정도 접점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박) 큰 맥락에서 보면 작업들이 공간에 대해 사유하는 것이 많다. 이전 작업에서는 무너지기 쉬운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감정인가?

노) 공간이 무너질 수 있다에 대한 의심은 없었다. 작업을 하는 데 있어, 오히려 무너지는 공간이라는 큰 대상은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오히려 공간을 구분하는 경계를 바라보며 그 경계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게 되었다. 공간을 구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리를 차지한다는 의미에서

욕구와 맞닿아 있고, 오히려 그 경계가 시각화 되거나,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때, 그 힘의 완력은 더 강해진다고 느낀다. 경계가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은 심리적 위협으로 다가오기도 하면서, 오히려 눈에 보이는 벽이 사라지면 불안함은 극대화되며 확장하게 된다. 이전 작업 연평도 사건을 다루었던 <공간충돌> 작업은 많은 사람들이 이를 정치적으로 바라보려는 경향이 짙는데, 당시 내가 충격적으로 느꼈던 것은 연평도에 닥친 정치적 상황보다 집이 부서져 있는 모양, 그 자체의 상태였다. 이전까지 공간의 경계가 견고한 아파트에서 살면서, 집이라는 공간이 매우 안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한 견고한 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모습이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장면을 통해 이제껏 집이 주었던 안정감이 사라지는 순간, 견고하고 안전하게 짜여진 집이 어느새 무너질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였다. 때문에 오히려 이미 무너져 버린 폐허를 바라볼 때면, 그 경계에 대한 불안이 느껴지지 않았다. 이전 작업에서 그러한 균열의 가능성들이 스스로에게 큰 불안으로 다가왔다면, 이제는 다른 부분에서 불안이 생성되기 시작하였고, 더 이상 그 경계에 대한 불안이 크게 다가오지 않아서 인지, 현재 작업에 있어 시각적 표현 부분에 더 치중하게 된 것 같다.

박) <양양호텔> 작업이나 폐허에 대한 사유는 그 공간들이 아무도 살지 않고 비어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빈 공간에 대한 작가의 감정은 어떤 것인가?

노) 빈 공간에 대한 나의 감정은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해방감인 것 같다. 문서상의 소유주는 분명 존재하겠지만, 누군가 물리적으로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상황이 제약이 없는 공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이것이 작업과 직결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빈 공간에 대한 사유는 나의 커다란 관심 대상 중 하나이다. 어느 공간이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폐허의 경우에는 그런 것 없이 자유로이 들어갈 수 있다는 해방감이 있고, 또한 지어지지 못한 채 남겨져 있는 건물은 무언가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완성되지 못한 채 남겨져 있다는 상황이 주는 불편함이 있다. 그리고 나에게서는 이러한 불편함과 해방감이 교차하는 지점이 흥미롭게 다가왔다.

박)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작업들에서 ‘그리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는 사물이나 장면들이 이루는 교차점을 어느 정도 찾았다고 생각하는가?

노) 구조가 건축적인 대상들에 대한 관심이 있다. 작은 건축물같이 힘의 구조가 잘 느껴지는 대상, 균형감이 잘 맞는 대상에 관심이 간다. 힘에 균형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런지 작업을 보면 대부분의 대상이 바닥에 놓여있다. 은연중에 바닥이나 지지체를 항상 염두에 두고 그림을 그리는 것 같다.

결국 모든 사물들을 안정적인 구도로 그리려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불안을 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어떠한 사물이 지지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곧 그 상태가 지지체가 없으면 불안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지지체가 상태의 불안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박) 지금 작업에서 앞으로의 작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가 된다.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은가?

노)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정물 형식으로 풍경이나 대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다. 더불어 폐허를 어떻게 그리고 왜 그럴까에 대한 의문들을 가지고 현재 폐허가 가지는 이미지들에 대한 리서치도 지속할 예정이다.

폐허라는 대상이 가지는 함의가 매우 흥미로운데, 사전에서 폐허를 의미를 찾아보면 ‘인공과 자연이 섞인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폐허가 단순히 부서지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들이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림으로써 그 상태를 폐허로 규정짓는 의견에 대해서도 더 알아보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시각적 변화로서의 도시화 과정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려고 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작업을 진행할 때, 작업에서의 변화에 큰 의미를 두기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쌓여있는 고민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나가 보고자 한다.

인터뷰2

일시 및 장소 : 2015년 11월 30일 (한국예술종합학교)

대상 : 한성우 작가 (이하 '한')

인터뷰 : 박주원 (이하 '박')

박) <윌링앤딜링>에서의 전시 이후 작업에 있어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한) <윌링앤딜링> 전시에서 보여주었던 작업과 현재 진행하는 작업들에서 그림의 소재라는 부분에 있어 크게 달라진 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소재를 풀어내는 방향에 있어서 스스로의 작업을 풍경으로 바라보던 것이, 이제는 하나의 장면이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다. 장면이라는 것에는 보여지는 장면이 있고, 내가 바라보고자 하는 장면이 있다. 그리고 이 장면 속에는 하나의 대상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싶어 하는지가 담겨있다. 이전에는 대상을 이미지로 풀어내는 것에 있어 좀 더 수동적인 입장을 취했다면 지금은 나의 관점에 더 집중하며 보다 주도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박) 작가가 '바라보고자하는 장면'이라는 관점에서 주로 대상이 되는 장면은 어떤 것인가?

한) 소재적인 측면에서 어느 장소에 놓여진 물건들이 무대의 뒷면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무대의 정면은 모든 것들이 놓여야 할 자리가 있고, 그 것이 활용되는 때가 있다. 반면 무대의 뒷면은 무대의 앞면을 완벽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간으로 물건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데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들처럼 보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진 물건들을 소재로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다.

하나의 예로서 작업실의 바닥을 바라볼 때, 작품을 만들기 위해 떨어져 지워져가는 페인트라든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흔적들이 쌓여가는 모습이 재미있게 느껴졌다. 그것을 확장해보면 단지 바닥뿐 아니라, 모든 장소들이 그러한 흔적들을 쌓아가고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해 하게 되었다. 내가 의도하거나, 목표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부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 있을 테고, 그것이 무질서하지만 무대의 뒷면같이 남아있다고 생각했다. 작업이 추상적으로 표현되었지만, 작업 속에서 일관되게 생각했던 부분은 바로 그러한 것들이었다. 단순히 바닥을 똑같이 재현하는 것은 나에게 큰 의미가 없다. 하지만 바닥에 흔적이 쌓여가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박) 시간이 지남으로써 쌓이는 흔적과 작업의 추상화라는 맥락에서 볼 때, 이제 작가는 작업 안에서 이미지의 형태보다 작업을 통해 전달되는 감정이나 감각을 더 중요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다.

한) 이전에는 알아볼 수 있는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면, 이제는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다.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환기되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끌어낼 수도 있겠지만, 작업 속에서 물감이 발린 방식이나 질감, 분위기 등 다른 요소들이 환기시키는 감각 또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나는 그러한 감정들 뿐 만 아니라 작업 과정 속에서 애초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이 우연히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도 가지고 있다.

박) 작가의 작업 요소 안에서 나타나는 공간에 대한 기억, 감정이나 분위기가같이 시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을 인상이라고 정의한다면, 작가는 작업 안에서 인상의 표현에 집중하고 있는 듯 보인다.

한) 인상보다는 형상이라고 하는 편이 더 맞는 것 같다. 나에게 인상이라는 말은 어떠한 대상이나 이미지를 보면서 느껴지는 것들을 재해석하여 그린다는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작업이 흔적들로 이루어진 추상화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형태를 그리고자 하는 것도 아니지만, 형태가 하나의 사실성이라면 형상은 어떠한 형태에 대한 암시를 가진 사실적인 모양새라고 생각했다. 이전에도 작업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 형상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는데, 이것은 기억에 의해 달라지는 형태의 왜곡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형상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실제 이미지보다 더 사실적인 이미지를 얻고자 한다.

박) 형상의 사전적인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보다 명쾌한 이해를 위해 한 번 확인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

한) 형상의 사전적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형상이란 사물의 생긴 모양이나 상태를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마음과 감각에 의하여 떠오르는 대상의 모습을 떠올리거나 표현함 또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데, 나의 작업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중 후자가 맞는 표현인 것 같다.

박) 형상을 그린다는 표현이 곧 대상을 바라보는 작가의 태도를 말해주는 것 같다. 작가에게 본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작가에게 있어 본다는 것은 단지 시각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인상, 감정, 체험, 형상들을 모두 담고 있는 것처럼 다가온다. 또한 이것은 단지 작업을 표현하는 데에 있어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의 시작점에서부터 작용하는 것 같다.

한) 본다는 것은 곧 그린다고 하는 것과 매우 달아있는데, 이는 그리기를 통해 대상을 새롭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에게서는 그리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다.

박) 본다는 행위를 시각적 경험에만 국한하지 않고, 확장하는 개념이 흥미롭다. 이러한 관점에서 작가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까?

한) 무엇을 본다는 것과 무엇을 그린다는 것은 항상 붙어있는 상태로 순환되는 것 같다. 나는 작업 안에서 나의 기억이나 경험에서 환기할 수 있는 이미지들, 예상에서 계속 벗어난 형상들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 다른 것들을 더 보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그림을 그리는 동기와 재미를 주는 것 같다.

박) 또 다른 주제로는 작업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 '흔적'이라는 키워드가 흥미롭게 느껴졌다. 여기서 흔적이라는 것이 캔버스에 물감을 쌓는 작가의 움직임이나, 시간성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말해 주면 좋겠다. 더불어, 앞서 흔적에 대해 설명하면서 의도적이지 않은 것들로 구성된 모습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작업 속에 담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다.

한) 이전에 그림은 흔적을 남기는 다양한 방식들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어떤 관점에서 회화의 역사라는 것은 인간들이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특정한 방식의 역사이며,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흔적을 남길까? 라는 관점에서 고민을 한 적이 있다. 나의 그림은 꽤 두껍게 표현되는데, 그것은 내가 그리려고 하는 대상의 감각적인 유사성을 생각하면서 그리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다. 분명 그림이 매끄러워지거나, 얇아지면 같은 이미지라도 그 느낌이 확연히 다를 것이다. 나에게 있어 흔적을 남긴다는 것은 단지 나의 의도뿐만 아니라 작업 속에서 생기는 우연성들을 화면에 최대한 개입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상이나 장면을 그린다는 것조차도 순간순간 생각나는 것들을 재현하는 과정이지만, 나는 그 속에서 벗어나보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작업에 있어, 우연적 요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사실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회화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담아야 하고, 그 안에서 드러나는 흔적들은 인과관계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우연적이고 비논리적인 방식으로 읽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 때문에 나에게 있어 흔적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도를 내포한다고 하기보다 그림 전체의 과정을 보다 사실적이고 자연스럽게 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터뷰3

일시 및 장소 : 2015년 11-12월 (합정동/ 방배동)

대상 : 김영민 작가 (이하 '김')

인터뷰 : 박주원 (이하 '박')

박) 드로잉 작업의 매체로서 컴퓨터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하다.

김) 컴퓨터라는 매체의 선택은 선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컴퓨터로 작업을 하면 완성된 작업을 봤을 때, 감정이나 내용이 없는 무심한 느낌의 선을 구현할 수 있다. 나는 때때로 페인팅이나 드로잉 속 이미지가 담고 있는 내용이나, 색상 등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강요적으로 다가온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컴퓨터 드로잉은 그러한 느낌이 없다. 관객으로 하여금 읽힐 것이 없는 상태로서, 오로지 화면에 구성된 선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작업을 바라볼 때, 반드시 그 안의 의미나 내용을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나의 작업 화면에서 선으로 구성된 형식들이 관객으로 하여금 유희적으로 느껴지길 바란다. 컴퓨터 드로잉을 통해 결국은 내용이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작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박) 아무리 작업 속에서 내용적인 부분이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도 작품이 공개적으로 전시가 되는 상황이니만큼, 전시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업과 관객의 관계는 필연적인 것이 된다. 비록 작가가 전달하고 싶은 의도나 내용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필연적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전달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

김) 나의 작업은 어떠한 내용을 담으려는 의도는 없다. 하지만 작업을 관객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작업을 하며 유희적으로 느끼는 부분을 관객 역시도 유희적으로 바라봤으면 한다.

박)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새로운 작업은 어떤 것인가?

김) 사실은 이전부터 실현해보고 싶은 작업 방식이 있었다. 작업에 있어 과정이 매우 중요한 작업으로, 그것은 윌링앤딜링에서의 첫 번째 PT&Critic 전시에서 보여주었던 작업들 이전에 시도했던 실험방법이다. 진행 방법은 컴퓨터로 그린 이미지를 출력해, 캔버스 위에 재현하고 그것을 다시 사진으로 촬영해 컴퓨터에서 따라 그린 뒤, 출력본을 같은 캔버스에 그려내는 것이다. 그리고 캔버스에서 컴퓨터로 옮겨진 이미지를 따라 그릴 때에는 그리다가 잘못 그려진 부분은 컴퓨터로 지워 수정하거나, 필요한 부분의 이미지를 덧그리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면서 작업은 결과적으로 완결 없이 무한반복이 가능한 형식을 따른다. 작업이 중단되는 것은 결국, 같은 캔버스에 이미지를 덧그리는 작업을 통해 캔버스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시점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 속에서 이미지는 계속 변화하고 결국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정이 된다. 사실 과정이 중요한 작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 지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하였지만, 이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무한히 반복되면서 맹목적으로 가는 부분이 재미있게 느껴진다.

박) 무한 반복을 통해 완결이 없는 작업을 하고 싶다고 하였는데, 작가가 생각하는 작업에서의 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김) 완결이 없는 작업이라는 개념은 내가 작업을 하며 느꼈던 이미지에 대한 허무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나는 작업을 완성한 이후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였고 그와 동시에 완성에 대한 허무함을 느꼈다. 그것은 아마 내가 작업에 있어 형식적인 부분에 더 치우치게 되면서 그랬던 것 같다. 어떤 때에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완성하기 위해 덧칠을 하다가 결국 작업을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서 내가 언급한 실험 방법 안에서는 나의 이러한 상황을 오히려 더 잘 이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는 보다 만족스러운 작업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것이 개인적 만족을 넘어 전시로서 관객 앞에 나아간다면, 그 필연적 관계 속에서 그리기와 지우기의 반복으로 과정만 남는 이 행위가 개인적 만족감 이상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실험 방법의 첫 단계인 컴퓨터 드로잉을 시작점으로서 제시하지만, 앞으로의 작업을 통해 이러한 행위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인터뷰4

일시 및 장소 : 2015년 11월 30일(작가 작업실)

대상 : 구민정 작가 (이하 '구')

인터뷰 : 박주원 (이하 '박')

박) 이제는 본인의 작업에 있어 평면보다는 공간이 더 중요해진 것처럼 보인다. 공간에 원래 있는 구조나 형태를 있는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 공간 자체를 활용한다는 의미처럼 다가온다. 특히 <디링> 작업의 경우, 바닥에 거울을 설치하는 등 작업을 위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작업과 공간의 관계를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구) '디링' 을 입체 작업으로 풀었던 이유는 전시공간이 갖고 있는 물리적인 특성들이 평면보다 입체를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입체설치가 될지, 벽을 통한 설치가 될지는 선택되는 전시공간에 좌우된다. '디링' 은 전시 공간 자체가 모티브가 된 작업이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원래의 공간에 작업을 침투시키고자 했다.

박) 갤러리 카페 작업이나 두산 갤러리 작업을 보면 공간에 들어갔을 때, 작가가 느끼는 생각이나 그 공간에 존재하는 색상에서 모티브를 얻거나, 기존의 물체들을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작가가 공간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라 느껴진다. 작업 진행과정을 공간과 작가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작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구) 나는 공간의 구조, 디테일 등의 시각적 단서들을 통해 작업을 풀어나간다. 그래서 전시 준비를 할 때 설치가 들어갈 공간을 먼저 정해두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보통은 전시 공간을 정하고 그 곳을 구성할 작업들을 준비하는데, 두산에서의 전시는 이례적으로 같이 전시하는 다른 작가들의 작업에 반응하는 작업을 선보였다.

박) 공간과 작업에 따라, 이전 작업에서 보여진 부분이 재편집 또는 재사용 되는 방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이 작품 속에서 개체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요소로서 간주되기 때문인 건지, 그 연관관계 역시 궁금하다.

구) 작업이 부분과 전체의 관계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전 작업에서의 그림이나 오브제는 다른 화면이나 장소를 만났을 때 새로운 오브젝트로서 작용하게 된다.

박) 작업의 특성상, 일회적으로 보여지고 작업이 사라지는 형식을 띄는데, 작업이 일회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구) 일회성으로 보여진다고 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은 아니다. 물론 작업했었던 그 버전은 없어진다. 굉장히 맘에 들었던 작업마저도 전시가 끝나고 원래 벽으로 다시 복구시켜야 했을 때 아쉬웠던 적이 없다. 일회성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더 해볼 수 있었던 것들을 했던 것 같다.

박)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요소요소가 유기적이면서 유동적으로 느껴진다. 이러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구) 나의 작업은 마치 세포가 분열하고 증식하여 어떤 생명체가 되듯이, 한 귀퉁이에서 시작된 이미지 위에 새로운 이미지가 추가되고 달라붙으며 점점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진다.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방법이 유기적이고, 이미지의 움직임에 상상하면서 작업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것이다.